

##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선 유지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 수준'인 3만달러 선은 유지했지만 2년 연속 하락세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2.5% 증가한 487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 1,000달러를 조금 상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1인당 GNI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 합친 뒤 인구 수대로 나눈 지표다. 국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3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06년 처음으로 2만 달러 선에 진입한 뒤, 11년만인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3만 달러 선에 들어섰다. 이후 2018년 3만3,563달러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엔 3만2,114달러로 내려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3만 달러 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명목 GNI는 올해 1분기 -2.0%, 2분기 -1.2% 역성장했다. 원/달러 환율도 올해 평균(1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이



▲ 수출 회복세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선을 유지했다. 사진은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모습. 사진=shutterstock

1,188.28원으로 전년평균(1,165.65원)보다 높아 달러로 환산한 GNI가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3분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개선 신호가 나타났다. 물가수준을 의미하는 GDP디플레이터도 2분기 1.2%, 3분기 2.0%로 2분기 연속 상승했다. 최근 1,100원대 초반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원화강세)하면서 명목GNI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수출 회복세는 내년에도 이어지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등도 회복세에 영향을 준다면 내년 국민소득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새해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 통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4천 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0억 원 증액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 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용자 예산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원, 2천621억원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 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 한국인 평균 83.3세까지 산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평균 기대수명이 83.3년으로 추산됐다. 2018년(82.7년)보다 0.6년, 20년 전인 1999년(75.5년)과 비교해선 7.8년 늘었다.



▲ 한국인 기대수명 0.6년 증가했다. 사진=shutterstock

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하는 통계표다. 197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해당 연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83년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이 80.3년, 여성은 86.3년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간 격차(6.0년)는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은 2.2년, 여성은 2.9년 더 높다. 여성은 OECD

회원국 중 일본(87.3년) 다음으로 높았고, 남성은 11위였다. 1999년엔 남성과 여성 각각 OECD 평균보다 0.6년, 0.7년 낮았으나 의학 기술 발달 등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만 60세였던 남성의 기대여명은 23.3년, 여성은 28.1년으로 예상됐다. 각각 83.3세와 88.1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보다 남성은 0.5년, 여성은 0.6년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 61.7%, 여성 81.0%였다. 2018년보다 각각 1.7%, 1.1% 포인트씩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가 사망할 경우 주요 사인은 암(21.1%), 심장질환(11.7%), 폐렴(10.2%), 뇌혈관 질환(7.6%) 등의 순으로 예상됐다.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b>로스 알라미토스</b> 방4 화3 2,590sq 최고학군 위치 동네 인접 프라이웨이, 상가, 부엌, 화장실 완전 리모델, 아늑하고 잘 정비된 정원 새집과 같음 <b>\$795,000</b>	<b>부에나 파크 4유닛</b> 방2 화1 / 4개 Garage 수입 \$84,960 <b>\$1,260,000</b>	<b>플러튼 4 유닛</b> 방2 화1 / 4개 Garage 수입 \$95,160 <b>\$1,200,000</b>	<b>오바린다 3유닛</b> 방3 화2 Garage, 2006년생 수입 \$100,800 <b>\$1,999,000</b>	<b>부에나파크 3유닛</b> 방3 화2 / 방1 화1 1971년생 수입 \$58,672 <b>\$1,100,000</b>	<b>애나하임 3유닛</b> 방3 화2 / 방2 화2 Garage, 1976년생 수입 \$54,000 <b>\$950,000</b>
	<b>로스 알라미토스</b> 방3 화2 최고의 학군 리모델링, 전기, 부엌 캐비닛, 새창문 <b>UNDER CONTRACT \$850,000</b>	<b>애나하임 6유닛</b> 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 <b>\$1,399,000</b>	<b>로스 알라미토스</b> 방4 화2 좋은 학군 건평 1,844sq <b>\$999,000</b>	<b>애나하임 4유닛</b> 방2/1 화1 월인컴 \$7,912 파킹5대 <b>\$1,295,000</b>	<b>부에나 파크 3유닛</b> 방2 화1 월인컴 약 \$4,400 <b>\$850,000</b>	<b>터스틴 4유닛</b> 방3/2 화2/1 월인컴 \$7,198 <b>\$1,425,000</b>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